

연구·과학 도시에 핀 문화의 꽃 '이응노 미술관'

사라이
문화자산이다

<6> 화가 이응노와 대전



이응노 작 '군상'



이응노 미술관 전시실 모습.



충남 홍성에 자리한 이응노 화백의 생가.



대전시는 지난 2007년 고암 이응노 화백의 예술을 조명하고 가치와 비전을 알리기 위해 미술관을 건립했다. 대전 이응노 미술관 전경.

그의 그림에는 늘 인간이 있다. 정물처럼 박제된 인간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캔버스에서 걸어 나올 듯한 인간들이다.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엮여 있다. 이 무명인 사람들은 오히려 그림 속에서 존재 의미와 생명을 획득한다. 거대한 캔버스가 '그림 속의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 속의 그림'으로 보이는 이유다.

고암(高庵) 이응노(1904~1989). 그의 작품 '군상'(1986)은 사람에 초점을 맞춘다. 일필휘지로 그려낸 인간의 형상은 가히 장관이다. "붓으로 서체를 쓴 듯한" 형상이다. 한 번의 붓놀림은 한 사람의 형상으로 전이되었다. '군상'은 고암의 미적 세계를 아우르는, 예술관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대전에는 이응노 미술관이 있다. 이곳에는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를 자유자재로 넘나들었던 고암의 예술세계가 집약돼 있다. 대전시는 2007년 충남(충성) 출신인 이응노 화백의 예술을 조명하고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자 미술관을 건립했다. 한옥의 처마를 연상시키는 지붕과 주위의 대나무 조경은 고적했던 고암의 성품을 드러낸다.

그동안 대전은 월드 스포츠 스타를 배출한 고장으로 알려져 왔다. 골프 선수 박세리와 야구선수 박찬호가 이곳 출신이다. (박찬호는 공주 출신이지만 사람들은 대전 사람으로 본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적인 화가 이응노를 배출한 고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암 이응노 때문이다.

대전시가 문화자산 브랜드로 이응노 화백을 선정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고암은 아호대로 (돌아볼 '巖', 집 '庵') 사후 18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다. 물론 그의 유해는 파리에 묻혀 있지만, 이곳 미술관에는 그의 작품과 한국적인 혼이 응결돼 있다. 더욱이 미술관은 문화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등 대전 예술의 심장부가 자리한 곳이다. 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대전에는 연구기관과 다수의 민간 연구소들이 있다. 대덕연구단지, KAIST 등 정보산업 클러스터와 예술의 융합은 필연적이다."

이지호 이응노미술관장은 예술과 과학 기술의 접목으로

지역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미술관 운영에도 ICT(정보통신기술) 방식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사실 한 사람의 예술가는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예술가로 태어났다 해도 그를 성장시키는 주체는 지역이며 고향이다. 고향의 하늘과 땅, 4계의 자연은 화가의 미적 자질을 북돋우고 확장시키는 자양분이다. 국적, 성, 이름을 바꿀 수 있어도 나고 자란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익히 아는 대로 이응노는 홍성에서 출생했다. 부친의 서당에서 한자를 익혔고 17세에 충남 당진의 송태회에게 서화를 배웠다.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는 대전과 전주, 서울을 오가며 그림을 공부했고 이후에는 일본, 독일, 프랑스를 무대로 작품활동을 펼친다. 한 마디로 그의 생애는 유목적 삶이었다. 어느 곳에도 정주하지 않는 삶은 그를 이방인으로 내몰

었다. 예술적 성취는 스스로를 타자화하지 않고는 불가능했을 터이다. 1960년대는 그에게 잊을 수 없는 시절이었다.

1962년 유럽 최고 갤러리 '폴 파케티 화랑'의 전속 작가가 되었고 1964년에는 파리 동양미술학교를 설립한다. 그는 사군자와 서예를 매개로 한국의 미와 감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

그러나 1967년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해였다. '동백림사건'(당시 동백림에서 활동하던 유학생과 예술인들을 탄압한 공안사건)에 연루돼 2년 여의 옥고를 치른 것이다.

"지질 줄 모르는 창작열은 오히려 감옥 속에서 화려하게 피어난다. 이 시절 고암은 간장과 된장을 재료로 그림을 그렸고, 다양한 재료를 토대로 수많은 작품을 완성한다. 출옥 후에는 프랑스로 돌아가 '문자추상'이라는 새 화풍을 연다. 기하학적으로 변형한 문자는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며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후 말년에는 '군상' 시리즈로 극렬했던 예술 인생의 대미를 장식한다."

정수미 학예사는 "이응노 이름은 그 자체로 브랜드다"며 "한국화를 기반으로 세계화한 작가"라고 평한다. 그러면서 정 학예사는 "예술이 질기다는 것을 이응노의 삶과 미술을 통해 느끼게 된다"고 덧붙인다. /대전-홍성=글 박성천기자skypark@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홍성에 70억 들여 생가 기념관

고암 작품·유물 750여점 전시

"우리 집 남쪽으로는 우리나라라고 불리는 산이 있었고, 북쪽에는 용봉산이라고 불리는 바위투성이의 봉우리가 있었다.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계절에 따라, 이 산들의 모습은 그 이층처럼 보였다. 즉, 월산이 아름답고 수수하고 우아하여 한마디로 여인의 자태를 보여 준다. 용봉산은 강인하고 위엄있게 우뚝 솟아 있었다."(고암 이응노, 파케티 갤러리 개인전 도록 중에서, 1971년)

이응노의 기념관은 그의 예술적 품모를 담아 정겹고 아늑하다. 네모난 건물은 주변의 산세와 어느 한곳 어긋남 없이 조화를 이룬다. 흙색의 벽면과 넓은 유리창은 밖의 풍경을 자연스럽게 불러들인다.

홍성군은 지난 2011년 11월 2만㎡(6700평) 부지에 70억을 들여 생가기념관을 건립한다. 당시 지역알리기 사업 일환으로 문화예술인 선양사업을 진행했는데, 때마침 충남도청(2013년) 이전과 맞물리면서 이응노 '브랜드화'는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기념관 옆에는 생가가 자리한다. 초가지붕과 회벽으로 복원된 생가에는 대나무 숲이 조성돼 있다. 기념관은 본동과 부속동, 야외전시장, 네 개의 전시공간을 갖추고 있다.

유적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270여 점 등 고암의 작품과 유물 등 모두 750여 점이 보관돼 있다. 기념관에서는 매년 어린이 대상 예술 체험과 미술, 역사, 건축 등 다양한 주제의 인문학 강좌를 연다. 작년에는 고암 탄생 110주년을 기념해 기념전이 개최됐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2007년 문화자산 브랜드로 미술관 건립

1962년 '폴 파케티 화랑' 전속 작가 활동

사군자·서예 매개 한국의 미 세계에 알려

동백림 사건 연루 2년여 옥고 치르기도

출옥 후 佛로 가 '문자추상' 화풍 열어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KORI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합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임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